▶내신 기출, 국어 창비-상편◀

1. 독서는 나의 힘

⑴ 확신이 없어도 괜찮아 (37문제)----------1쪽

⑵ 세상에 단 한 권뿐인 시집 (30문제)----------16쪽

2. 문학의 갈래

⑴ 비 (51문제) ----------37쪽

⑵ 삼포 가는 길 (47문제)----------53쪽

⑶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43문제)----------79쪽

⑷ 보지 못한 폭포 (32문제)----------103쪽

3. 국어와 우리 생활

⑴ 음운의 변동 (66문제)----------119쪽

⑵ 한글 맞춤법의 원리 (69문제)----------139쪽

⑶ 존중하고 배려하는 대화 (31문제)----------161쪽

4. 소통하는 말과 글

⑴ 공간이 달라지면 사는 풍경도 달라질까 (32문제)-------175쪽

◆빠른 전체 정답 ----------195쪽

◆해설 ----------197쪽

교재 버전: 2021.02.01

pt005pt (카톡 ID) : 내용 질문, 오류 신고

www.chongmangug.co.kr : 시험 대비 자료실, 오류 체크

“음운의 변동” 핵심 정리

핵심 정리

갈래	설명문
성격	해설적, 분석적, 예시적
주제	음운 변동의 원리와 규칙
특징	• 음운 변동의 종류와 유형을 항목별로 나누어 설명함으로써 독자의 이해를 높임. • 자주 나타나는 음운 변동의 사례를 대화로 구성하여 음운 변동의 원리와 규칙을 설명함.

음운 변동의 개념

개념	어떤 음운이 환경에 따라 다른 음운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
예	• 붙이다[부치다], 부치다[부치다]: 말을 할 때 특정한 환경에서 음운이 변하기에 표기가 다른데도 똑같이 발음됨.

우리말 음운 변동의 종류

교체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된소리되기
탈락	모음 탈락
첨가	반모음 첨가
축약	거센소리되기

음절의 끝소리 규칙

개념	‘ㄱ, ㄴ, ㄷ, ㄹ, ㅁ, ㅂ, ㅇ’ 곱 개 이외의 자음이 음절 끝에 오면 일곱 자음 중의 하나로 발음하게 되는 현상
예	• 부엌[부억]: ‘ㅋ’이 [ㄱ] 으로 발음됨. • 바깥[바깓]: ‘ㅌ’이 [ㄷ] 으로 발음됨.

비음화

개념	‘ㄱ, ㄷ, ㅂ’이 ‘ㄴ, ㅁ’ 앞에서 [ㅇ, ㄴ, ㅁ]으로 발음되는 현상
예	• 국물[궁물]: ‘ㅁ’ 앞에서 ‘ㄱ’이 [ㅇ] 으로 발음됨. • 닫는[단는]: ‘ㄴ’ 앞에서 ‘ㄷ’이 [ㄴ] 으로 발음됨. • 밥물[밤물]: ‘ㅁ’ 앞에서 ‘ㅂ’이 [ㅁ] 으로 발음됨.

유음화

개념	‘ㄴ’이 ‘ㄹ’을 만나 유음 [ㄹ]로 발음되는 현상
예	• 산림[살림]: ‘ㄹ’ 앞에서 ‘ㄴ’이 [ㄹ] 로 발음됨. • 물놀이[물로리]: ‘ㄹ’ 뒤에서 ‘ㄴ’이 [ㄹ] 로 발음됨.

구개음화

개념	끝소리가 'ㄷ, ㅌ'인 형태소가 주로 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 구개음 [ㅈ, ㅊ]으로 발음되는 현상
예	• 굳이[구지]: 'ㅣ' 앞에서 'ㄷ'이 [ㅈ]으로 발음됨. • 같이[가치]: 'ㅣ' 앞에서 'ㅌ'이 [ㅊ]으로 발음됨.

된소리되기

개념	'ㄱ, ㄷ, ㅂ, ㅅ, ㅈ'이 일정한 환경에서 된소리인 [ㄲ, ㄸ, ㅃ, ㅆ, ㅉ]으로 발음되는 현상
예	• 독서[독써]: 'ㅅ'이 [ㅆ]으로 발음됨. • 품고[품꼬]: 'ㄱ'이 [ㄲ]으로 발음됨. • 발전[발쩐]: 'ㅈ'이 [ㅉ]으로 발음됨.

모음 탈락

개념	용언 어간 끝의 모음 'ㅏ/ㅓ'나 'ㅡ'가 '-아서/-어서'와 같이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탈락하는 현상
예	• 가서[가서]: '가 -'와 '- 아서'가 결합해 'ㅏ'가 탈락함. • 써[써]: '쓰-'와 '- 어'가 결합해 'ㅡ'가 탈락함.

반모음 첨가

개념	모음으로 끝나는 형태소 뒤에 단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올 때 반모음이 첨가되는 현상
예	• 되어[되어/되여]: 'ㅚ' 뒤에 'ㅓ'가 올 때 [ㅕ]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함. • 맛집이오[맏찌비오 /맏찌비요]: 'ㅣ' 뒤에 'ㅗ'가 올 때 [ㅛ]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함.

거센소리되기

개념	'ㄱ, ㄷ, ㅂ, ㅈ'이 'ㅎ'과 결합하면 [ㅋ, ㅌ, ㅍ, ㅊ]으로 바뀌어 발음됨. 이렇게 'ㅎ'의 앞이나 뒤에 예사소리가 놓일 때 둘이 합쳐져 거센소리로 소리나는 현상
예	• 이렇게[이러케]: 'ㅎ'이 'ㄱ'과 결합해 [ㅋ]으로 발음됨. • 법학[버팍]: 'ㅂ'이 'ㅎ'과 결합해 [ㅍ]으로 발음됨.

올바른 발음과 표기의 중요성

정확한 발음과 올바른 표기는 원활한 의사소통의 밑바탕이 됨.

▼

음운 변동에 담긴 원리와 규칙을 이해하여 올바르게 발음하고 표기하는 능력을 길러야 함.

“[illegible]” [illegible]

1. 다음 문장을 소리 내어 읽고 제시된 표의 빈칸을 채워 보자.

해돋이를 보려고 한참을 뛰어 전망대 근처에 도착하자 해가 떠 버렸어.

표기	발음	변동 내용	음운 변동 현상
해돋이	[해도지]	모음 ‘ㅣ’ 앞에서 ‘ㄷ’이 [ㅈ]으로 발음됨.	구개음화
뛰어	[뛰어 / 뛰여]	‘ㅟ’ 뒤에 어미 ‘-어’가 올 때 반모음이 첨가되어 [여]로 발음되기도 함.	반모음 첨가
도착하자	[도차카자]	‘ㄱ’이 ‘ㅎ’과 만나 [ㅋ]으로 발음됨.	거센소리되기
떠	[떠]	용언 어간 ‘뜨-’의 ‘ㅡ’가 어미 ‘-어’와 결합하면서 탈락함.	모음탈락

2. 다음 단어에서 음운의 변동이 어떤 단계를 거쳐 일어나는지 빈칸을 채우며 확인해 보자.

단어	→	1단계	→	2단계
앞마당	→	[압마당]	→	[암마당]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꽃다발	→	[꼳다발]	→	[꼳따발]
		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되기
닫히다	→	[다티다]	→	[다치다]
		거센소리되기		구개음화

4. 다음 단어의 발음과 음운변동을 쓰시오.

	정확한 발음	음운변동
옻나무	[온나무]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닥나무	[당나무]	비음화
그렇다고	[그러타고]	거센소리되기
거짓말	[[거진말]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못 해	[모태]	음절의 끝소리 규칙, 거센소리되기
화살나무	[화살라무]	유음화

5. 다음 대화를 읽고 제시된 활동을 해 보자.

선배: 아니, 어떻게 알고 왔어? 깜짝 놀랐네. 어쨌든 정말 고마워!
후배: 헤헤, 다 아는 수가 있죠! 선배, 대상 받으신 것 축하해요. 계속 (응원할게요 / 응원할께요).

(1) ‘선배’의 말 가운데 밑줄 친 단어의 올바른 발음을 표시해 보자. 그리고 여기에 적용된 음운 변동을 <보기>에서 찾아 보자.

□[어떠케]
□[어떧께]

□[놀랃네]
□[놀란네]

<보기>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유음화, 된소리되기, 거센소리되기

• 어떻게[어떠케]: 거센소리되기 • 놀랐네[놀란네]: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2) **다음의 규칙을 바탕으로 정확한 발음과 표기를 익힌 다음, '후배'가 한 말의 정확한 표기와 발음을 써 보자.**

규칙	· 관형사형 '-(으)ㄹ'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하지만 표기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 '-(으)ㄹ'로 시작되는 어미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	
연습	힘들 거라 나갈 거야 [힘들꺼라] [나갈 거야] [해드릴걸]
▼	
표기와 발음	계속 응원 [할께요].

모락고등학교 (경기)

1. <보기>에서 설명하는 음운 변동의 예로만 묶인 것은?

<보기>

음운 변동의 유형 중 특이한 것으로 축약을 들 수 있다. 축약은 'A'와 'B'라는 두 음운이 결합하여 'C'라는 제삼의 음운으로 줄어드는 음운 변동이다. 국어의 축약은 주로 'ㅎ'과 다른 자음이 결합할 때 일어난다.

① 잃고[일코], 많군[만쿤] ② 않아[아나], 많지[만치]
③ 넣은[너은], 놓다[노타] ④ 많네[만네], 쌓은[싸은]
⑤ 쌓는[싼는], 않고[안코]

모락고등학교 (경기)

2. 밑줄 친 말 중에서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단어로 적절한 것은?

<보기>

음운 변동의 유형 중 탈락의 한 종류로서, 두 개의 모음이 만났을 때 그 중 한 개의 모음이 탈락하는 현상을 모음 탈락이라고 한다.

예 쓰- + -어 → [써], 푸- + -아서 → [퍼서]

① 눈을 <u>떠</u> 보니 집이었지 뭐야.
② 눈에 <u>띄게</u> 네 얼굴이 수척해졌어.
③ 결국 맏형이 모든 일을 처리해야 <u>돼</u>.
④ 이거 마음에 들면 네가 <u>가져도</u> 괜찮아.
⑤ 공책을 어디에 <u>뒀는지</u> 몰라 한참 찾았어.

모락고등학교 (경기)

3. <보기>의 ㉠, ㉡에 해당하는 예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기>

'ㄴ'이 앞이나 뒤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바뀌어 소리 나는 현상을 유음화라고 한다. 유음화는 음운이 동화되는 방향에 따라 <u>㉠순행적 유음화</u>와 <u>㉡역행적 유음화</u>로 나눌 수 있다.

	<u>㉠ 순행적 유음화</u>	<u>㉡ 역행적 유음화</u>
①	물난리	종로
②	광한루	대관령
③	전라도	논란
④	줄넘기	강릉
⑤	실내	탄력

모락고등학교 (경기)

4. <보기1>과 <보기2>를 참고로 학생들이 된소리되기 현상을 탐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1>

된소리되기란, 예사소리 'ㄱ, ㄷ, ㅂ, ㅅ, ㅈ'이 앞의 소리에 영향을 받아 된소리인 'ㄲ, ㄸ, ㅃ, ㅆ, ㅉ'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현상이다.

<보기2>

표준발음법 제6장 된소리되기

제23항

받침 'ㄱ(ㄲ, ㅋ, ㄳ, ㄺ), ㄷ(ㅅ, ㅆ, ㅈ, ㅊ, ㅌ), ㅂ(ㅍ, ㄼ, ㄿ, ㅄ)'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예) 꽃고[꼳꼬], 넓죽하다[넙쭈카다]

제24항

어간 받침 'ㄴ(ㄵ), ㅁ(ㄻ)'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예) 삼고[삼꼬], 껴안다[껴안따]

다만, 피동, 사동의 접미사 '-기-'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예) 안기다[안기다], 굶기다[굼기다]

제26항

한자어에서, 'ㄹ' 받침 뒤에 연결되는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예) 갈등[갈뜽], 물질[물찔]

제27항

관형사형 '-(으)ㄹ'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예) 할 것을[할꺼슬], 갈 데가[갈떼가]

① '깎아'가 [까까]로 발음되는 이유는 제23항에 따라 받침 'ㄲ'이 'ㄱ'으로 발음되어 뒤에 연결되는 'ㄱ'을 된소리로 만들기 때문이야.
② '더듬지'가 [더듬찌]로 발음되는 것처럼 '감기다' 또한 제24항이 적용되어 [감끼다]로 발음해야 해.
③ 제24항에 따르면 표기상으로는 똑같이 '신고'라고 할지라도 그 의미와 성격에 따라 [신꼬]라고 발음해야 하는 것과 [신고]라고 발음해야 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어.
④ '넓둥글다'는 [넙뚱글다]로 발음해야 하는데, 이는 받침 'ㄼ' 중에서 'ㄹ'만 남아 제26항이 적용되기 때문이야.
⑤ 사람들이 '내 것'이라는 말을 [내꺼]라고 발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제27항에 따른 것이야.

모락고등학교 (경기)

5.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협력 → [혐녁]　㉡ 흙만 → [흥만]

㉢ 옷맵시 → [온맵씨]

① ㉠ : 인접한 자음의 특성에 동화되는 음운 변동이다.

② ㉡ : 음운 변동 후 음운의 수가 많아진 것은 아니다.

③ ㉢ : 2번의 음운 변동이 나타난다.

④ ㉠, ㉡, ㉢ : 비음이 아닌 음운이 비음 앞에서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⑤ ㉠, ㉡, ㉢ : 표기와 발음이 달라지는 이유는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양재고등학교 (서울)

6. 다음은 문법 수업의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에 들어갈 말을 차례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도입	• 선생님의 설명 : '굳이[구지], 끝이[끄치], 붙이다[부치다]'처럼 'ㄷ, ㅌ'이 모음 'ㅣ'를 만나면 'ㅈ, ㅊ'으로 바뀌는 현상을 ㉠ 라고 합니다. 그런데 '견디다[견디다], 티끌[티끌], 홑이불[혼니불]' 등에서도 'ㄷ, ㅌ'이 모음 'ㅣ'를 만나지만 'ㅈ, ㅊ'로 발음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학습활동을 차례대로 풀어보면서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전개	(1) 각 단어의 형태소를 분석해 보자.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 /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 • 굳이=굳-+-이 • 끝이=끝+-이 • 붙이다=붙-+-이-+-다 • 견디다=견디-+-다 • 티끌=티끌 • 홑이불=홑-+이불 (2) (1)을 통해 알 수 있는 음운 변동 환경을 정리해 보자. → ㉮에서는 'ㄷ, ㅌ'와 'ㅣ'가 ㉡ 에서 만나고, ㉯에서는 '홑이불'을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 'ㄷ, ㅌ'와 'ㅣ'가 ㉢ 에서 만난다. (3) 모음'ㅣ'가 속해 있는 형태소의 의미를 파악해 보자. → ㉮의 '-이'는 문법적인 의미를 가진 ㉣ 이고, ㉯의 '이불'은 구체적인 의미를 가진 ㉤ 이다.
정리	• 선생님의 설명 : 위의 학습활동에서 살펴본 것처럼 ㉠ 현상은 형태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① 구개음화/한 형태소/형태소 경계/형식 형태소/실질 형태소

② 구개음화/형태소 경계/한 형태소/실질 형태소/형식 형태소

③ 구개음화/형태소 경계/한 형태소/형식 형태소/실질 형태소

④ 거센소리되기/형태소 경계/한 형태소/실질 형태소/형식 형태소

⑤ 거센소리되기/형태소 경계/한 형태소/형식 형태소/실질 형태소

양재고등학교 (서울)

7. 다음 문장에서 음운의 변동이 일어나는 단어를 모두 찾아 <조건>에 맞게 표준 발음을 쓰시오.

나는 오늘 새로 산 운동화를 신고 지은이와 선릉역 서점에 갔는데 지하철을 잘못 타서 조금 늦게 서점에 도착했다.

<조건>

작성 방법 : 국민[궁민]

양재고등학교 (서울)

8. <보기>의 ㉠~㉤의 밑줄 친 부분에 적용된 음운 변동이 동일하게 나타난 예가 아닌 것은?

<보기>

국어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유음화, 된소리되기, 거센소리되기 등의 음운 변동이 있다.

㉠ 우리 누나는 법학과[버팍꽈]에 다니고 있다.

㉡ 이번 방학에 뜻하지[뜨타지] 않은 행운을 만났다.

㉢ 밥을 다 먹었는데[머건는데] 빵도 먹었다.

㉣ 친구들을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나눧따].

㉤ 마을 최고의 권력자[궐력짜]는 촌장이었다.

① ㉠올해 입학식은 3월 2일이었다.

② ㉡이렇게 번듯한 가구를 왜 버리는지 모르겠다.

③ ㉢새로 이사 간 우리 집은 부엌만 크다.

④ ㉣수지가 나에게 꽃다발을 선물로 주었다.

⑤ ㉤촌장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권력을 동원했다.

양재고등학교 (서울)

9. <보기>를 바탕으로 음운의 변동과 음운의 개수 변화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보기>

음운의 변동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 어떤 음운이 없어지는 ㉡탈락, 새로운 음운이 생기는 ㉢첨가, 두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합쳐지는 ㉣축약이 그것이다. 음운의 변동 전후로 음운의 개수가 달라지기도 하는데 '교체'는 개수의 변화가 없고 '탈락'과 '축약'은 음운의 개수가 하나 줄어들며 '첨가'는 음운의 개수가 하나 늘어난다.

① '배춧잎[배춘닙]'에서는 ㉠과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므로 음운의 개수가 1개 늘어났다.
② '줄넘기[줄럼끼]'에서는 ㉠과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므로 음운의 개수가 1개 늘어났다.
③ '국화꽃[구콰꼳]'에서는 ㉣과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므로 음운의 개수가 1개 늘어났다.
④ '닭다리[닥따리]'에서는 ㉡과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므로 음운의 개수에 변화가 없다.
⑤ '편입학[펴니팍]'에서는 ㉢과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므로 음운의 개수에 변화가 없다.

양재고등학교 (서울)

10. <보기>를 참고할 때 동화의 방향이 다른 것은?

<보기>

자음 동화는 음절의 끝 자음이 그 뒤에 오는 자음과 만날 때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닮거나 양쪽 모두 비슷한 소리로 바뀌는 현상이다. 대표적인 자음 동화 현상에는 '비음화, 유음화'가 있다.

이러한 자음 동화 현상은 변화 방향에 따라 '순행 동화'와 '역행 동화'가 있다. '순행 동화'란 인접해 있는 두 자음 중에서 뒤의 소리가 앞의 소리를 닮는 것이고, '역행 동화'란 인접해 있는 두 자음 중에서 앞의 소리가 뒤의 소리를 닮는 것이다.

① 광한루 ② 흙만 ③ 대관령 ④ 달나라 ⑤ 긁는

양재고등학교 (서울)

11. <보기>의 ㉠~㉣에 해당하는 단어로 적절한 것을 고르면?

<보기>

된소리되기는 'ㄱ, ㄷ, ㅂ, ㅅ, ㅈ'과 같은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어 소리 나는 현상으로, 다음과 같은 환경에서 된소리로 발음된다.

㉠ 받침 'ㄱ(ㄲ, ㅋ, ㄳ, ㄺ), ㄷ(ㅅ, ㅆ, ㅈ, ㅊ, ㅌ), ㅂ(ㅍ, ㅄ, ㅀ, ㅃ)' 뒤에 'ㄱ, ㄷ, ㅂ, ㅅ, ㅈ'가 올 때
㉡ 어간 받침 'ㄴ(ㄵ), ㅁ(ㄻ)' 뒤에 첫소리 'ㄱ, ㄷ, ㅅ, ㅈ'인 어미가 올 때
㉢ 한자어에서, 'ㄹ' 받침 뒤에 'ㄷ, ㅅ, ㅈ'이 올 때
㉣ 어간 받침 'ㄼ, ㄾ' 뒤에 첫소리 'ㄱ, ㄷ, ㅅ, ㅈ'인 어미가 올 때

	㉠	㉡	㉢	㉣
①	책상	신다	절기(節氣)	훑다
②	국밥	젊다	발전(發展)	넓다
③	깍두기	닮다	전등(前燈)	밟다
④	압박감	끼얹다	설계(設計)	핥다
⑤	야단법석	뛰어넘다	결과(結果)	옳다

신송고등학교 (인천)

12. (가)의 ㉠, ㉡에 들어갈 표준 발음을 (나)를 참고하여 바르게 쓰시오.

(가) 학생의 탐구 내용
지난 시간의 문법탐구 모둠활동에서 같은 단어가 주어진 환경에 따라 다르게 발음되는 경우를 공부했어. 이번 시간에 배운 표준 발음법에 따라 이 단어들의 올바른 발음을 생각해 보니. '닭은'은 (㉠), '닭 앞에'는 이어서 발음하면 (㉡)(으)로 발음해야 해.

(나) 표준 발음법 조항
[제14항]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엣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이 경우 'ㅅ'은 된소리로 발음함.)
[제15항]
받침 뒤에 모음 'ㅏ, ㅓ, ㅗ, ㅜ, ㅟ'들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한글 맞춤법의 원리" 핵심 정리

핵심 정리

갈래	설명문
성격	분석적, 예시적, 체계적
주제	한글 맞춤법의 원리
특징	• 효율적인 의사소통의 측면에서 한글 맞춤법의 원리를 바라봄. • 실생활에서 자주 쓰는 말을 사례로 들어 이를 한글 맞춤법의 원리와 연결 지어 설명함. • 올바른 표기 방법뿐만 아니라 그 이유까지 분석하여 제시함.

한글 맞춤법을 제정한 이유

말을 글자로 적을 때에 일정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함.

▼

위와 같은 혼란을 피하고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하기 위해 한글 맞춤법을 제정함.

▼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한글 맞춤법 제1항)

한글 맞춤법의 원리 ①: 표음주의

단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는 표음주의

▼

표기와 소리가 같은 말 → 바다, 나무, 하늘, 여름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된소리가 나는 말 → 으뜸, 잔뜩, 살짝, 움찔, 몽땅

▼

소리글자인 한글의 특성을 잘 살린 원리

한글 맞춤법의 원리 ②: 표의주의

단어를 어법에 맞도록 적는 표의주의

▼

• 체언+조사 → 꽃이, 꽃을, 꽃에서 • 체언+체언 → 꽃나무, 꽃밭, 꽃다발	용언+어미 → 읽고, 읽지만, 읽는다

▼

형태소의 본모양을 밝혀서 뜻을 분명히 드러내는 원리

어법에 맞도록 적는 이유

형태소의 본모양을 밝혀서 적음. = 어법에 맞도록 적음.

▼

뜻이 분명히 드러나게 하여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임.

표음주의와 표의주의의 공존

① 두 용언이 결합한 복합어

표음주의	앞 단어가 본래의 뜻에서 멀어진 경우 → 드러나다('들다/나다'로 분석할 수 없음.)
표의주의	앞 단어의 본래 뜻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 → 들어가다('들다/가다'로 분석됨.)

② 어근과 접미사가 결합한 복합어

표음주의	접미사가 여러 어근에 결합하지 못하고 극히 일부 어근에만 결합하는 경우 → 마주, 지붕, 바가지(형태소의 본모양을 밝히지 않음.)
표의주의	접미사가 비교적 여러 어근에 결합하고, 결합한 후에도 어근의 본래 뜻이 유지되는 경우 → 많이, 묶음(형태소의 본모양을 밝힘.)

헷갈리기 쉬운 맞춤법

'웬'과 '웬'

웬지	• 까닭이나 원인을 물어볼 때 쓰는 '왜'에 '인지(이- + -ㄴ지)'가 결합한 '왜인지'가 줄어든 말 • '웬지' (×)
웬일	• '어찌 된 일, 의외의 뜻'을 나타내는 한 단어 • '웬일이니?'와 같이 씀.

'안'과 '않'

안	• '아니'의 준말 • '비가 안 온다.', '안 먹고는 살 수 없다.'처럼 쓰임. • '안 하고' (○)
않다	• '아니하다'의 준말 • '배고프지 않다.', '아프지 않다.'처럼 쓰임. • '않 하고' (×)

'어떻게'와 '어떡해'

어떻게	• '어떠하다'가 줄어든 '어떻다'에 '-게'가 결합하여 부사어로 쓰이는 말 •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된 거야?'처럼 쓰임.
어떡해	• 어떻게 해'가 줄어든 말 • '나 어떡해?' (○) '나 어떡해하지?' (×)

"한글 맞춤법의 원리" 고려한 발음

1. 다음 설명의 빈칸을 채우며 한글 맞춤법의 원리를 이해해 보자.

> 쥐를 쫓는 고양이를 개가 쫓아 달리는 한낮의 골목길
>
> 이 문장의 '쫓는', '쫓아'를 ('쫀는'), ('쪼차')와 같이 소리대로 적으면 같은 뜻의 말을 다른 형태로 적게 되어 그 뜻을 쉽게 파악할 수 없어. 하지만 '쫓는'과 '쫓아'처럼 어간의 본모양을 밝혀 어법에 맞도록 표기하면 ('쫓-')이라는 실질 형태소뿐 아니라 '-는', '-아'라는 형식 형태소의 모양과 의미도 잘 드러나. 한글 맞춤법에는 소리대로 적는 원칙도 있지만, 이렇게 (어법)에 맞도록 적는 원칙도 있어.

2. 국어사전을 참고하여 다음 제시어들의 발음을 확인하고 두 가지 기준에 따라 나누어 보자.

제시어	바람	밥상	곧이
발음	[바람]	[밥쌍]	[고지]
제시어	이파리	사라지다	흩어지다
발음	[이파리]	[사라지다]	[흐터지다]

• 소리대로 표기한 말

바람, 이파리, 사라지다

• 어법에 맞도록 표기한 말

밥상, 곧이, 흩어지다

3.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안내에 따라 활동하며 한글 맞춤법을 이해해 보자.

접미사 '-하다'가 붙는 어근은 '급하다', '뚜렷하다'와 같이 본모양을 밝혀 적어요. 왜냐하면 '-하다'는 여러 어근에 널리 결합하기 때문입니다. 부사를 만드는 접미사 '-이'나 '-히'도 마찬가지여서 '뚜렷이', '급히'와 같이 적습니다. 그러나 '-하다'가 붙지 않는 말은 어근과 접미사가 결합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꼭)'처럼 소리대로 적어요. 한편 '곰곰이'와 같은 말은 '곰곰하다'처럼 '-하다'가 붙을 수는 없지만 '곰곰'이라는 부사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본모양을 밝혀 적는답니다. 그럼 아래 표에서 정확한 표기를 고르고 그 까닭과 원리를 생각해 볼까요?

표기	까닭	원리
깨끄시 / 깨끗이	'깨끗'은 접미사 '-하다'가 붙는 어근인데, 접미사 '-이' 또한 '-하다'처럼 여러 어근에 널리 결합하기 때문에 본모양을 밝혀 적는다.	소리대로 / 어법에 맞도록
슬며시 / 슬몃이	'-하다'가 붙을 수 있는 어근 '슬몃'이라는 형태소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슬며시'는 '슬몃이'와 같이 어근과 접미사가 결합한 형태로 적지 않고 소리대로 적는다.	소리대로 / 어법에 맞도록
일찍이 / 일찍이	'일찍'에는 '-하다'가 붙을 수 없지만 '일찍'이라는 부사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본모양을 밝혀 적는다.	소리대로 / 어법에 맞도록

4. 맞춤법에 어긋나는 표현을 찾아 바로잡고, 어긋나는 까닭을 말해 보자.

경고문	엄마: 엄마가 오늘 늦어. 설겆이 좀 해 줄 수 있겠니? (오후 3:44)
쓰레기 안 되! 침도 뱉지 마시오. 엄중히 경고합니다.	저도 오늘 바쁜데. 아뭏든 노력해 볼게요.

맞춤법에 어긋나는 표현	바로잡은 표현	어긋나는 까닭
안되	안돼	'되-'는 '되다'의 어간인데 종결 어미 '-어'와 결합하면 '되어'가 되고 이것을 줄이면 '돼'가 된다.
경고함니다	경고합니다	'경고하다'의 어간 '경고하-'에 종결 어미 '-ㅂ니다'가 결합하면 '경고합니다'가 된다. 비음화가 일어나기는 하지만 어간과 어미는 소리대로 적지 않고 본모양을 밝혀 적는다.
설거지	설거지	'설거지'는 어근 '설겆-'에 접미사 '-이'가 결합한 형태가 아니라 원래부터 '설거지'라는 명사이기 때문에 소리대로 적는다.
아무튼	아무튼	'이렇든', '저렇든'은 '이렇다', '저렇다'라는 용언의 활용형이어서 '이러튼', '저러튼'과 같이 소리대로 적지 않고 어간('이렇-', '저렇-')과 어미('-든(-든지')를 구별하여 적지만, '아무튼'은 그와 달리 부사이기 때문에 소리대로 적는다.

5. 다음 글을 읽고 사이시옷 표기를 한글 맞춤법의 원리에 비추어 이해해 보자.

<맞춤법 일기>

오늘은 집 근처 식당에 앉아 차림표에 적힌 '순댓국'을 뚫어져라 보았다. 어제 다른 식당에서 먹은 것은 '순대국'이었기 때문이다. 어쩐지 '순대'를 넣고 끓인 '국'은 [순대국]이 아니라 [순대꾹]이나 [순댇꾹]이어야 더 맛깔스러울 것 같았다. 사실 '순대'와 만난 '국'은 [꾹]으로 소리 나는데 이렇게 된소리가 난다는 것을 밝혀 주기 위해 '순대'와 '국' 사이에 사이시옷을 넣는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순대꾹]이라는 소리를 '순댓국'으로 표기하는 셈이다. 이때 받침에 덧붙여 적은 'ㅅ'을 [ㄷ]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하여 [순댇꾹]도 표준 발음으로 인정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순댓국'이란 표기는 '소리대로' 적은 것일까, '어법에 맞도록' 적은 것일까?

(1) 한글 맞춤법 제1항을 참고하여 다음 표의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 보자.

순대 + 국		
소리대로 적으면	어법에 맞도록 적으면	맞춤법에 맞게 적으면
⬇	⬇	⬇
순대꾹	순대국	순댓국

(2) 이 글의 끝부분에 제기한 의문에 답해 보자.

'순댓국'이라는 표기는 [꾹]으로 소리 나는 '국'을 소리대로 적지 않고 본모양을 밝혀 적었다는 점에서 어법에 맞도록 적으려 노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ㅅ'을 받침으로 적어 된소리가 나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는 점에서는 소리대로 적으려 노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순댓국'은 어느 한쪽의 원리만 따랐다기보다는 한글 맞춤법의 두 원리를 충실히 반영하려는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언어는 언중 사이의 사회적 약속이다. 말을 글자로 적을 때에 일정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저마다 다르게 적는다면 그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일이 많아질 것이다. 이 같은 혼란을 피하고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하기 위해 제정한 것이 '한글 맞춤법'이다. 한글 맞춤법 제1항은 표준어를 한글로 적을 때 지켜야 할 원칙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한글은 소리글자이므로 소리대로 적을 수 있고, 그렇게 적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예를 들어 '바다', '나무', '하늘', '여름' 등은 소리대로 적는다. 이것은 표기와 소리가 같은 말들이다.

또한 '으뜸', '잔뜩', '살짝', '움찔', '몽땅'처럼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된소리가 날 때 다음 음절의 첫 소리를 된소리로 적는 것도 소리대로 적는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이때 뚜렷한 까닭이 없다는 것은 두 모음 사이나 'ㄴ, ㄹ, ㅁ, ㅇ' 받침 뒤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는 환경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소리대로 적는다는 원칙을 적용하기 어려울 때도 있다. 예를 들어 '꽃'이라는 단어는 그 말이 놓이는 환경에 따라 소리가 달라진다. 달라진 소리를 그대로 적는다면 의사소통의 효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 · 나무에 꼬치 피어 꼰나무가 되면 온 세상이 꼳빨처럼 보여.
> · 나무에 꽃이 피어 꽃나무가 되면 온 세상이 꽃밭처럼 보여.

'꼬치', '꼰나무', '꼳빨'은 각각 '꽃+이', '꽃+나무', '꽃+밭'을 소리대로 적은 것이다. 이렇게 '꽃'이라는 하나의 단어를 '꽃', '꼰', '꼳'과 같이 여러 가지 소리로 적으면 그 의미를 바로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꽃'으로 형태를 고정하여 적으면 '꽃'의 어휘적 의미가 분명하게 전달된다.

> · 진희는 신문을 읽고 승주는 시집을 읽지만 나는 소설을 읽는다.

이는 체언뿐 아니라 용언도 마찬가지다. '읽고[일꼬]', '읽지만[익찌만]', '읽는다[잉는다]'에서처럼 어간 '읽-'은 환경에 따라 [일-], [익-], [잉-] 등으로 다르게 소리 난다. 그러나 '읽-'으로 형태를 고정하여 적으면 '읽-'의 어휘적 의미뿐 아니라 '읽-'과 결합한 어미 '-고', '-지만', '-는다'의 문법적 의미도 분명해진다.

형태소의 본모양을 밝혀서 적는 까닭은 뜻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하여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적는 것을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고 한다.

이와 같이 한글 맞춤법에는 '소리대로' 적는 원리와 '어법에 맞도록' 적는 원리가 공존한다. 그렇다면 언제 소리대로 적고 언제 어법에 맞도록 적는 것일까?

> · 경찰이 창고로 들어가고 나서 목격자의 진술은 곧 거짓으로 드러났다.

두 개의 용언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하나의 단어를 표기할 때, 앞 단어의 어간과 어미의 본모양을 밝혀 적는 때가 있고 소리대로 적는 때가 있다. 예를 들어 '들어가고'와 '드러났다'의 앞 단어는 모두 [드러]로 소리 나지만, '들어가다'는 '들다/가다'로 분석되는 반면에 '드러나다'는 '들다/나다'로 분석할 수 없다. '드러나다'의 '드러'가 '들다[入]'라는 본래 뜻에서 멀어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두 개의 용언이 결합하여 하나의 단어가 될 때, 앞 단어의 본래 뜻이 유지되고 있으면 그 어간과 어미의 본모양을 밝혀 적고, 앞 단어가 본래의 뜻에서 멀어졌으면 소리대로 적는다.

> · 작은 들꽃을 많이 꺾어서 꽃다발 한 묶음을 만들었다.
> · 흥부 부부가 톱을 마주 잡고 지붕에 열린 박을 타서 바가지를 만들고 있다.

[A] 접미사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말을 적을 때에도 형태소의 본모양을 밝혀 적는 때가 있고 소리대로 적는 때가 있다. 예를 들어 어근에 접미사 '-이'나 '-(으)ㅁ'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많이', '묶음'은 형태소의 본모양을 밝혀 적은 말들이다. '-이'나 '-(으)ㅁ'이 비교적 여러 어근에 결합하고, 결합한 후에도 어근의 본래 뜻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주(맞-+-우)', '지붕(집+-웅)', '바가지(박+-아지)'는 각각 어근 '맞-'과 '집', '박'의 본모양을 밝히지 않고 소리대로 적은 말들이다. 그러다 보니 각각의 접미사 '-우', '-웅', '-아지'의 본모양도 드러나지 않게 되었다. 형태소의 본모양을 밝혀 적으면 뜻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도 이처럼 소리대로 적는 까닭은 접미사 '-우', '-웅', '-아지'가 접미사 '-이'나 '-(으)ㅁ'과 다르게 여러 어근에 널리 결합하지 못하고 극히 일부 어근에만 결합하기 때문이다.

광교고등학교 (경기)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한글 맞춤법의 원리가 지닌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고 있다.
② 한글 맞춤법의 원리를 소개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③ 한글 맞춤법의 원리를 실생활의 사례와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다.
④ 한글 맞춤법의 원리가 등장한 배경과 그 역사적 의의를 제시하고 있다.
⑤ 한글 맞춤법의 두 가지 원리를 제시하고 그 중 하나의 관점에 따르는 원리를 소개하고 있다.

광교고등학교 (경기)

2. ⓐ와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는 표음문자로서의 한글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
② ⓐ는 '이파리, 구름'과 같이 소리와 표기가 같은 말을 적을 때 적용된다.
③ ⓑ는 음운 변동이 일어난 실제 발음을 고려하여 반영한다.
④ ⓑ는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의 모양과 의미가 모두 잘 드러난다.
⑤ ⓑ는 어휘의 의미를 분명하게 전달하여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높여준다.

광교고등학교 (경기)

3. [A]를 바탕으로 <보기>의 밑줄 친 단어를 이해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 책 묶음을 밖으로 내놓고 교실을 깨끗이 정리하자.
㉡ 그 사람은 미덥지 못한 행동을 자주 한다.
㉢ 형이 병마개를 찾아서 나는 급히 부엌으로 갔다.

① ㉠: '묶음'의 '-음'은 비교적 여러 어근에 결합되므로 형태소의 본모양을 밝혀 적었다.
② ㉠: '깨끗이'의 '-이'는 결합 후 어근의 본래 뜻이 유지되므로 형태소의 본모양을 밝혀 적었다.
③ ㉡: '미덥지'의 '-업-', '자주''의 '-우-'는 일부 어근에만 결합되므로 소리대로 적었다.
④ ㉢: '마개'의 '-애'는 어근의 본래 뜻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소리대로 적었다.
⑤ ㉢: '급히'의 '-히'는 비교적 여러 어근에 결합되므로 형태소의 본모양을 밝혀 적었다.

광교고등학교 (경기)

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보기>
㉠ 몽땅[몽땅], 어깨[어깨]
㉡ 밥상[밥쌍], 안고[안꼬]
㉢ 사라지다, 쓰러지다

① ㉠은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된소리가 나므로 소리대로 적는군.
② '핥다[할따], 기쁘다[기쁘다]'도 ㉠과 같은 예에 해당하므로 소리대로 적는군.
③ ㉡은 두 번째 음절이 필연적으로 된소리가 나므로 어법대로 적는군.
④ ㉢은 '살다+지다', '쓸다+지다'의 결합에서 앞말의 의미가 본래의 뜻에서 멀어져서 소리대로 적는군.
⑤ '넘어지다, 늘어나다'는 앞의 말의 의미가 그대로 드러나므로 ㉢과 달리 어법대로 적는군.

광교고등학교 (경기)

5. <보기>의 ㉠~㉤을 고쳐 쓴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나는 친구의 가족이 큰 사고를 당한 것을 앎고 가슴이 아팠다. 나는 그러한 상황에서 ㉠어떡해 말을 해야 할지 잘 판단이 서질 않았다. 하지만 ㉡친구로써 내가 진심을 다해 공감하고 위로한다면 ㉢왠지 친구의 마음이 조금 나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곰곰히 생각하며 친구에게 진심을 다해 편지를 써서 ㉤붙였다.

① ㉠: 어떻게
② ㉡: 친구로서
③ ㉢: 웬지
④ ㉣: 곰곰이
⑤ ㉤: 부쳤다

광교고등학교 (경기)

6. <보기>의 문장을 수정한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 아뭏든 노력해볼게요 → 아무튼 노력해볼게요
㉡ 쓰레기 버리면 안 되 → 쓰레기 버리면 안 돼
㉢ 슬몃이 찾아온 내 사랑 → 슬며시 찾아온 내 사랑
㉣ 나는 당신을 사랑함니다 →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 고기던지 야채던지 괜찮아 → 고기든지 야채든지 괜찮아

① ㉠: 어간 '아뭏-'과 어미 '-든(든지)'이 결합된 것이므로 소리대로 적는 '아무튼'으로 표기를 수정한다.
② ㉡: '되-'는 '되다'의 어간이므로 종결 어미 '-어'와 결합한 '돼'로 표기를 수정한다.
③ ㉢: '-하다'가 붙지 않는 말은 소리대로 적으므로 '슬며시'로 표기를 수정한다.
④ ㉣: 비음화를 거쳐 '사랑함니다'로 발음되지만 본모양을 밝혀 적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랑합니다'로 표기를 수정한다.
⑤ ㉤: 고기와 야채 중 선택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든'으로 표기를 수정한다.

광교고등학교 (경기)

7. ㉠~㉤중 한글맞춤법의 표기에 맞는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철수: 상우야, 왜 오늘 모둠 모임 ㉠안 하고 집에 갔어?
상우: 아, ㉡이따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엄마께서 동생을 돌보라고 급하게 말씀하셔서.
철수: 그랬구나, 근데 우리 모둠 친구들이 기분 ㉢나쁘데.
상우: 앗! 그렇겠다. 내가 이따가 모둠원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할께.
철수: 그래, 열심히 참여해주길 ㉤바라. 바로 답해줘서 고맙고.
상우: 그래, 연락줘서 고마워.
철수: 응, 안영 잘자.

① ㉠, ㉤
② ㉢, ㉣
③ ㉣, ㉤
④ ㉠, ㉡, ㉣
⑤ ㉠, ㉡, ㉤

화정고등학교 (경기)

8. <보기>의 내용을 참고할 때, 표기가 적절한 것끼리 묶인 것은?

<보기>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두 모음 사이서 나는 된소리와 'ㄴ, ㄹ, ㅁ, ㅇ'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된소리로 표기한다. 다만,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

① 국수, 뚝배기, 살짝, 으뜸, 혼쭐나다
② 깍뚜기, 깜짝, 몽땅, 산뜻하다, 오빠
③ 뚝배기, 몹시, 소쩍새, 싹뚝, 어깨
④ 몹시, 몽땅, 살짝, 싹뚝, 해슥하다
⑤ 소쩍새, 으뜸, 잔뜩, 해슥하다, 혼쭐나다

화정고등학교 (경기)

9. <보기1>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기2>의 밑줄 친 부분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1>

두 개의 용언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하나의 단어를 표기할 때, 앞 단어의 어간과 어미의 본모양을 밝혀 적는 때가 있고 소리대로 적는 때가 있다. 예를 들어 '들어가고'와 '드러났다'의 앞 단어는 모두 [드러]로 소리 나지만, '들어가다'는 '들다/가다'로 분석되는 반면에 '드러나다'는 '들다/나다'로 분석할 수 없다. '드러나다'의 '드러'가 '들다[入]'라는 본래 뜻에서 멀어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두 개의 용언이 결합하여 하나의 단어가 될 때, 앞 단어의 본래 뜻이 유지되고 있으면 그 어간과 어미의 본모양을 밝혀 적고, 앞 단어가 본래의 뜻에서 멀어졌으면 소리대로 적는다.

접미사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말을 적을 때에도 형태소의 본모양을 밝혀 적는 때가 있고 소리대로 적는 때가 있다. 예를 들어 어근에 접미사 '-이'나 '-(으)ㅁ'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많이', '묶음'은 형태소의 본모양을 밝혀 적은 말들이다. '-이'나 '-(으)ㅁ'이 비교적 여러 어근에 결합하고, 결합한 후에도 어근의 본래 뜻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주(맞-+-우)', '지붕(집+-웅)', '바가지(박+-아지)'는 각각 어근 '맞-'과 '집', '박'의 본모양을 밝히지 않고 소리대로 적은 말들이다. 그러다 보니 각각의 접미사 '-우', '-웅', '-아지'의 본모양도 드러나지 않게 되었다. 형태소의 본모양을 밝혀 적으면 뜻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도 이처럼 소리대로 적는 까닭은 접미사 '-우', '-웅', '-아지'가 접미사 '-이'나 '-(으)ㅁ'과 다르게 여러 어근에 널리 결합하지 못하고 극히 일부 어근에만 결합하기 때문이다.

<보기2>

㉠ 이파리가 푸르게 변하고 있어.
㉡ 늘그막에 삶의 이치를 깨달았다.
㉢ 길을 가다가 돌에 걸려 넘어졌다.
㉣ 바람이 부니 낙엽들이 흩어지고 있어.
㉤ 옷거리에 걸린 한복이 많이 낡았구나.

① ㉠: '잎'과 '-아리'의 결합으로, 어근 '잎'의 본래 의미가 남아 있기 때문에 어법에 맞게 '잎아리'로 표기해야 한다.
② ㉡: 어근 '늙-'의 본래 뜻이 유지되므로 어근의 원형을 밝혀 '늙으막'으로 표기해야 한다.
③ ㉢: 앞 어근의 본래 뜻이 사려졌기 때문에 소리대로 '너머졌다'로 적어야 한다.
④ ㉣: '흩다'와 '지다'로 분석할 수 없기 때문에 소리에 맞게 '흐터지고'로 적어야 한다.
⑤ ㉤: '옷+걸~+~이'의 결합으로, 접미사 '-이'는 여러 어근과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원형을 밝혀 '옷걸이'로 표기해야 한다.

"존중하고 배려하는 대화" 핵심 정리

핵심 정리

갈래	설명문
성격	해설적, 예시적
주제	존중하고 배려하는 의사소통의 방법
특징	• 기본적인 단어나 원리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한 후 내용을 설명함. •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대화 상황을 사례로 구성하여 제시함. • 말풍선을 활용하여 사례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이해를 도움.

대화의 의미와 특성

- 다른 이와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생각과 느낌 등을 표현하는 기본적인 의사소통 행위
- 언어생활에서 가장 많이 행하는 듣기·말하기 방식임.
- 각자의 생각, 경험과 가치관, 사회·문화적 배경 등의 여러 요인이 복잡하게 작용함.

▼

상황과 대상에 맞는 적절한 듣기·말하기 방법과 언어 예절을 알고 그에 따라 대화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듣기·말하기 방법의 다양성

① 지역 간의 언어 차이

방언	표준어
지역민들끼리 사용하는 언어 → 정겹고 친밀한 느낌	전 국민이 공통적으로 쓰는 언어 → 정확한 의사소통

▼

- 상호 보완적 관계임.
- 각자의 기능과 가치를 알고 상황에 맞게 사용해야 함.

② 여성과 남성, 세대 간의 언어 차이

각자의 경험과 사회·문화적 상황이 달라 듣기·말하기 방식이 저마다 다르게 형성됨.

▼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이며 진지하게 소통하려고 노력해야 함.

대화의 원리

① 협력의 원리

대화의 방향이나 목적에 맞도록 대화하는 것

▼

- 대화의 목적에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제공함.
- 거짓되거나 타당한 증거가 없는 내용은 말하지 말고, 진실한 정보만을 말함.
- 모호하거나 중의적인 표현은 피하고 간결하고 조리 있게 말함.

② 공손성의 원리

대화하는 사람들이 최대한 공손하고 예절 바른 태도로 상대방을 대화하려고 노력하는 것

▼

- 되도록 많이: 나에게 부담을 주는 표현, 상대에게 혜택을 주는 표현, 나를 낮추거나 상대를 칭찬하는 표현, 상대와 내 의견 중에 같은 점
- 되도록 적게: 상대가 부담을 느낄 만한 표현, 나에게 혜택을 주는 표현, 상대를 비난하거나 나를 칭찬하는 표현, 상대와 내 의견 중에 다른 점

③ 협력의 원리와 공손성의 원리의 예

실내가 추워서 상대방에게 창문을 닫아 달라고 말할 때

▼

협력의 원리	공손성의 원리
"문 좀 닫아." →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제공함.	"바람이 많이 들어와서 쌀쌀하네." "문 좀 닫아 줄래?" → 자신보다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함.

④ 공손성의 원리에 따라 대화하는 법

질문 형식으로 부탁하기	상대가 거절할 여지가 있어 부담이 덜함. [예] "지원아, 잠깐만 시간 돼? 미안하지만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부탁을 거절할 때는 이유를 밝히기	상대방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거절하는 이유를 정중히 밝힘. [예] "미안하지만 지금 급한 약속이 있어서 안 되겠어."

"[redacted]" 그래서 [redacted]

1. 이 글의 내용을 생각하며 다음 질문에 답해 보자.

㉠ 사람들마다 듣기·말하기 방법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 대화를 할 때 지켜야 할 원리의 내용은 무엇일까?

㉠ 개인의 성향뿐 아니라 세대, 성별, 지역 같은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 개인 혹은 집단 사이에 듣기·말하기 방법에 차이가 생긴다.

㉡ 대화를 할 때에는 대화의 방향이나 목적에 맞도록 대화해야 한다는 협력의 원리를 지켜야 한다. 이 협력의 원리에 따르면 대화를 할 때에는 대화의 목적에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거짓되거나 타당한 증거가 없는 내용은 말하지 말고 진실한 정보만을 말해야 한다. 또 대화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말을 해야 하고, 모호하거나 중의적인 표현은 피하며 간결하고 조리 있게 말해야 한다.

또한 효과적인 대화를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공손하고 예절 바른 태도로 말해야 한다는 공손성의 원리를 지켜야 한다. 이 공손성의 원리에 따르면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되도록 줄이고 혜택을 베푸는 표현은 많이 써야 하며, 자신에게 혜택을 주는 표현은 줄이고 부담이 되는 표현은 많이 해야 한다. 그리고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트집 잡는 표현은 줄이고 칭찬과 맞장구치는 표현은 많이 해야 하며, 자신을 칭찬하는 표현은 줄이고 자신을 낮추어 말해야 한다. 또 자신과 상대방의 의견 사이에 다른 점은 줄이고 같은 점은 드러내야 한다.

2. 다음 ㉮, ㉯를 읽고 제시된 활동을 해 보자.

㉮ 아버지: 유민아, 오늘 별일 없었어?
딸: 사실은 아빠, 오늘 정말로 깜짝 놀라실 만한 일이 있었는데요…….
아버지: 어, 잠깐만. 숙부님께서 전화하셨네.
아버지: (전화 받으며) 아이고, 아제이껴? 오랜마이시더. 어예 사니껴?
숙부: 그래, 조카도 오랜마이세. 어예 사는고?
아버지: 내사 뭐 매란 없이 삐치고 있니더.

㉯ 의사 1: (병원의 복도를 걸으면서) 이 선생, 501호 환자 상태가 어때요?
의사 2: 콜레시스텍토미 이틀째입니다. 특이 소견 없습니다.
의사 1: 바이탈은 어때요?
의사 2: 스테이블합니다.
의사 1: (병실로 들어와 환자를 보고) 안녕하십니까?

환자: 안녕하세요?
의사 1: 담낭, 그러니까 쓸개 절제술은 잘 됐습니다. 호흡이나 맥박도 안정적이고요. 혹시 어디 불편한 데가 있나요?
환자: 아뇨……. 괜찮아요.
의사 1: 별다른 증상이 없으면 조금 더 회복된 후 주말에 퇴원해도 되겠어요.

(1) ㉮에서 아버지가 표준어와 방언을 구분해서 사용하는 까닭을 말해 보자.

아버지는 딸과 이야기를 할 때에는 표준어를 사용하고 숙부와 전화 통화를 할 때에는 방언을 쓰고 있다. 아버지는 지역 방언을 사용함으로써 숙부와 좀 더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며 같은 지역 출신이라는 소속감과 정체성을 공유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 방언을 딸에게 사용하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딸에게는 표준어를 써서 말하고 있다.

(2) ㉯에서 의사 1이 의사들끼리 쓰는 말을 환자에게 썼다면 어떤 상황이 생겼을지 짐작해 보자.

- 환자가 의사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을 것이다.
- 환자가 의사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의학 용어의 의미를 묻느라 대화가 원활하게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3. 다음 대화를 읽고 제시된 활동을 해 보자.

다인: 서준아, 나 부탁이 있는데, 들어줄 수 있어?
서준: 무슨 부탁인데?
다인: 너 며칠 전에 책 샀다고 했잖아. 나도 보고 싶은데 괜찮다면 네 책 좀 빌려 줄 수 있을까?
서준: ㉠ 음……, 있잖아……. 내가 책을 무척 조심해서 봐서 말이야…….
다인: 내가 조심해서 잘 읽을게. 그리고 나도 너한테 빌려줄 것이 있으면 빌려주고.
서준: 음……, 알았어. 그럼 정말 조심히 잘 읽어야 해! 믿는다!
며칠 후.
서준: 다인아, 책 다 읽었어? 가지고 왔어?
다인: 그, 그게……. 가져오긴 했는데…….
서준: 야! 이게 뭐야! 찢어졌잖아! 너 조심해서 읽겠다고 하더니 어떻게 된 거야!
다인: ㉡ 서준아. 내가 책을 읽다가 책상 위에 잠깐 올려 두었는데 막내 지웅이가 그만……. 아니, 다섯 살짜리가 뭘 알겠어. 안 그래?
서준: 야, 너 미안하다고 하는 게 먼저 아냐? 어떻게 변명만 하고 있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너한테 다시는 뭐 안 빌려줄 거야.

(1) ㉠에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 말해 보자.

서준이는 책을 빌려 달라는 다인이의 요청에 언뜻 보기에는 관련성이 없는 답변을 하고 있다. 이는 협력의 원리를 의도적으로 어긴 것으로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상황을 고려하면 ㉠은 책을 빌려 달라는 다인이의 요청을 거절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2) 책을 빌리기 전에 다인이가 한 말에 <보기>의 내용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이야기해 보자.

<보기>
- 대화를 할 때에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되도록 줄여야 한다.
- 대화를 할 때에 자신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많이 해야 한다.

'대화를 할 때에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되도록 줄여야 한다.'라는 내용은 "괜찮다면 네 책 좀 빌려줄 수 있을까?"와 "조심해서 잘 읽을게."라는 표현에 반영되어 있다. 첫 번째 발화에서는 '괜찮다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청자인 서준이의 상황을 먼저 배려하면서 부탁하고 있으며, '빌려줘.'와 같은 직접적인 요구 대신에 '빌려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의 형식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거절할 수 있는 여지를 줌으로써 서준이의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 두 번째 발화에서는 서준이가 책을 무척 조심스럽게 다루는 자신의 성향 때문에 책을 빌려주기를 부담스러워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서준이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조심해서 잘 읽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있다.
'대화를 할 때에 자신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많이 해야 한다.'라는 내용은 "나도 너한테 빌려줄 것이 있으면 빌려주고"라는 표현에 반영되어 있다. 상대방이 부담스러워서 하기 싫어하는 일을 자신이 하겠다고 함으로써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대동세무고등학교 (서울)

1. 다음 대화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진경: 이 옷 어때? 색감도 참 좋고, 무척 시원하겠는걸, 이게 좋겠어.
동일: 넌 그렇게 보는 눈이 없냐? 그것보다 이게 더 낫겠구먼

① 자신에 대한 칭찬을 최소화했는가?
②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제공했는가?
③ 상대방에게 진실된 정보만 제공했는가?
④ 모호하거나 중의적 표현의 사용을 피했는가?
⑤ 상대방의 의견과 일치하는 점을 최대화했는가?

대동세무고등학교 (서울)

2. 표준어와 방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방언과 표준어는 서로 대립적 관계이다
② 방언도 그 나름대로 긍정적인 기능과 가치가 있다
③ 공식적인 상황에서는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④ 해당 지역민들 사이에서 발달한 언어를 방언이라고 한다
⑤ 사적인 자리에서 방언을 사용하면 정겹고 친밀한 느낌을 줄 수 있다.

대동세무고등학교 (서울)

3. 다음 대화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소연: 선배, ㉠안녕하세요.
승준: 어, 그래……. 어서 와.
소연: ㉡잘 지내셨죠? 아, 뛰어왔더니 목마르다, 음료수 있어요?
승준: 어쩌지, 음료수가 없는데, 물이라도 마실래?
소연: 물? 됐어요. 그런데 선배는 언제 퇴원하세요? ㉢엄청 바쁘다고요. 선배 대신 무대 연출할 사람이 없어서 다들 불안해하고 있는 건 아시죠?
승준: 어쩌지……? 한동안 누워 있어야 한 대
소연: 그래요? ㉣겉으로 봐선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퇴원하는 대로 연락주세요. 저는 바빠서 이만 가 볼게요. ㉤몸조리 잘하세요.

① ㉠은 아파서 입원한 환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인사말임.
② ㉡은 입원해 있는 환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안부 인사임.
③ ㉢은 아픈 환자에게 부담감을 주는 말하기임.
④ ㉣은 병문안의 대화 목적에 맞지 않는 말하기임.
⑤ ㉤은 대화의 주제에서 벗어난 말하기임.

대동세무고등학교 (서울)

4. 다음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빠: 뭐 해? 컴퓨터 게임하니? ㉠게임 말고 할 일이 많지 않아?
딸: ㉡할 일요? 게임이 제 할 일인데요. 조금만 더 할게요.
아빠: 게임이 네가 할 일이라고? 게임은 재미로 하는 것이고.
딸: 아빠는 참. 저 앞으로 게임 개발자가 되고 싶다고 했잖아요.
아빠: ㉢예로부터 직장은 안정적인 것이 최고야. 게임 개발을 해서 먹고살 수는 있겠니?
딸: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앞으로 게임 산업이 더 발전할걸요?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하는 게임을 만들면 되죠!

① ㉠은 완곡한 표현이다.
② ㉡은 직설적인 표현이다.
③ ㉢은 과거 지향적 표현이다.
④ ㉣은 미래 지향적 표현이다.
⑤ 위 글은 남녀 간의 언어 차이를 표현하고 있다.

대동세무고등학교 (서울)

5. 다음 대화를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인: 서준아, 나 부탁이 있는데, 들어줄 수 있어?
서준: 무슨 부탁인데?
다인: 너 며칠 전에 책 샀다고 했잖아. 나도 보고 싶은데 ⓐ괜찮다면 네 책 좀 빌려 줄 수 있을까?
서준: ⓑ음……, 있잖아……. 내가 책을 무척 조심해서 봐서 말이야…….
다인: 내가 조심해서 잘 읽을게. 그리고 ⓒ나도 너한테 빌려 줄 것이 있으면 빌려주고.
서준: 음……, 알았어. 그럼 정말 조심히 잘 읽어야 해! 믿는다!
며칠 후.
서준: 다인아, 책 다 읽었어? 가지고 왔어?
다인: 그, 그게……. 가져오긴 했는데…….
서준: 야! 이게 뭐야! 찢어졌잖아! 너 조심해서 읽겠다고 하더니 어떻게 된 거야!
다인: ⓓ서준아. 내가 책을 읽다가 책상 위에 잠깐 올려두었는데 막내 지웅이가 그만……. 아니, 다섯 살짜리가 뭘 알겠어. 안 그래?
서준: 야, 너 미안하다고 하는 게 먼저 아냐? 어떻게 변명만 하고 있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너한테 다시는 뭐 안 빌려줄 거야.

① ⓐ에는 공손성의 원리가 담겨 있군
② ⓑ는 언뜻 보기에는 협력의 원리가 지켜지지 않은 답변이군
③ 상황을 고려하면 ⓑ는 거절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군
④ ⓒ에는 공손성의 원리가 담겨 있지 않군
⑤ ⓓ는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을 하고 있군

대동세무고등학교 (서울)

6. 다음 중 협력의 원리에 속하는 것은?

① 맞장구치는 표현을 많이 한다
② 자신에 대한 칭찬을 최소화해야 한다
③ 상대방에 대한 칭찬을 가능하면 최대화해야 한다
④ 대화의 목적에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⑤ 의견 사이에 다른 점은 줄이고 같은 점은 드러내야 한다.

신도림고등학교 (서울)

7. 다음 (가)와 (나)에서 두드러지게 위배되는 협력의 원리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협력의 원리에는 적절한 정보량의 원리, 진실성의 원리, 화제 관련성의 원리, 명확성의 원리 등이 있다.

(가)
갑남: 넌 어느 학교 다녀?
을녀: 난 공립학교인 신도림고등학교 다니는데 선생님도 모두 훌륭하시고 전철역 바로 앞에 있어 다니기 굉장히 편리해. 그리고 급식도 아주 훌륭해.

(나)
병남: 부탁 좀 들어줄래?
정녀: (바쁜 일도 없으면서) 내가 좀 바빠서, 미안해.

(가)	(나)
① 적절한 정보량의 원리	화제 관련성의 원리
② 적절한 정보량의 원리	진실성의 원리
③ 진실성의 원리	화제 관련성의 원리
④ 화제 관련성의 원리	명확성의 원리
⑤ 진실성의 원리	명확성의 원리

신도림고등학교 (서울)

8. 다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대화의 원리의 하나인 공손성의 원리 중에는 자신에게 부담을 주는 표현을 최대화하라는 것이 있다.

① 혹시 시간이 되시면 저하고 잠시 말씀 좀 나눌 수 있으실까요?
② 말씀 참 잘하시네요. 얘기를 좀 더 듣고 싶습니다.
③ 목소리가 작아서 안 들립니다. 좀 더 크게 말해주세요
④ 제가 잠시 딴 생각을 해서 그러는데,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⑤ 주변이 너무 시끄러운데, 좀 더 크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안중앙고등학교 (충남)

9. 다음 대화 상황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엄마: 할머니께서 ㉠솔을 많이 싸 주셨어.
아들: 소나무요? 먼지 털어 내는 솔요?
아빠: ㉡정구지 얘기하는 거야.
아들: 정구지가 뭔데요?
엄마: 정구지는 ㉢부추야. 엄마 고향에서는 부추를 솔이라고 했어.
아들: 아, 그렇구나!

"공간이 달라지면 사는 풍경도 달라질까" 핵심 정리

제재 소개

-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진 집의 풍경 변화를 통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살펴보는 글
- 집을 둘러싼 안과 밖의 변화가 사람들의 관계에 미친 영향을 성찰함.
- 앞으로의 공간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문을 제시함.

핵심 정리

갈래	설명문
성격	비판적, 성찰적
주제	삶과 공간의 관계 성찰의 필요성
특징	• 과거의 주거 공간과 현대의 주거 공간을 비교하여 설명함. • 현대의 주거 문화를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음.

글의 주요 내용

마을의 변화: 마을의 뜻, 변화한 마을의 모습

▼

- **모여 사는 마을:** 과거 주거 형태의 특징
- **등질성과 사생활:** 오늘날 주거 형태의 특징

▼

공간과 사는 풍경: 공간의 변화가 사람들이 사는 풍경에 미친 영향

과거와 오늘날 마을의 특성

① 집의 특징

과거	• 마당에 텃밭까지 포함하는 공간 • 제각각의 형태를 띠지만, 집 안팎을 살펴보면 모여 살 수 있는 구조임.

▼

오늘날	• 개개인의 개별적인 공간 • 균일한 형태를 띠고, 사생활이 보장됨.

② 마을 형성 방법

과거	오랜 시간에 걸쳐 자연스럽게 형성됨.

▼

오늘날	불특정 다수를 위해 전문 건설업자들이 급조함.

③ 사이 공간의 유무와 역할

과거	사이 공간이 존재함.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만나 친밀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함.

▼

오늘날	사이 공간이 없음. 사람들 사이의 만남과 교류가 어려움.

사이 공간의 개념과 역할

개념	개인의 공간과 공공의 공간 사이에 있는 중간적 성격의 공간
역할	• 주민들 사이의 사적 관계를 형성하게 함. • 마을 사람들의 만남과 교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커뮤니티를 형성하게 함.

현대 한국식 공동 주택

① 아파트의 특징

• 적층을 기본으로 함.

• 한 건물 내의 수평적 또는 수직적으로 균일한 주거 공간이 밀집함.

• 밀집 공간에 동질성을 지닌 거주자가 모여 삶.

② 아파트가 끼친 영향

'사이 공간'이 없음.

▼

• 사생활을 최대한 보장하는 공간임.
• 공유할 만한 생활 모습이 거의 없음.

▼

• 단지 내외의 사람들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함.
• 현대인의 개인주의적인 성향과 부합함.

③ 아파트에서 집단의 힘이 발휘되는 경우

• 같은 단지 내 공동 목표를 추구할 때
• 단지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것일 때

▼

입주자회나 부녀회 같은 커뮤니티를 구성해 의사를 표현함.

▼

자신들이 집에 들인 비용을 지키기 위해 집단의 힘을 발휘함.

주거 공간과 사람들의 사는 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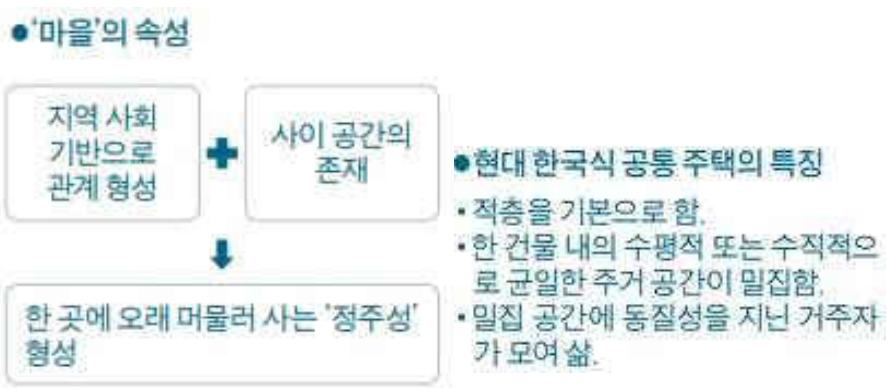
과거	• 사람들 사이의 소통이 활발했음. • 담과 담 사이, 건물과 건물 사이를 지나며 서로를 자연스레 알아 감.

▼

오늘날	•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과 교류가 어려움. • 외부 공간을 이동을 위해 지나가는 통행로로만 인식함.

[참고] 읽기 전/중/후 활동

읽기 전	• 글을 읽는 목적 확인하기 • 배경지식을 활성화하기 • 글의 내용을 예측하기
읽기 중	• 글의 내용 해석하고 추론하기 •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며 읽기 • 표지어에 유의하며 읽기
읽기 후	• 글을 읽으며 알게 된 사항 정리하기 • 글의 내용과 주제에 관해 사람들과 토의하기 • 관점이나 형식이 다른 글과 비교하기



●과거의 집과 현대 도시 사회의 집

과거	• 마당과 텃밭을 포함한 공간 • 생활 영역은 마을까지 확장
⬇	
현대	• 개개인의 개별적인 공간 • 이웃과 공유하는 공간이 매우 적거나 비어 있음.

●과거의 길에 대한 인식과 마을 형태

길이 곧게 뻗은 것을 흉하게 여김.	전통 마을의 길은 구부러지거나 꺾인 불규칙한 형태로 되어 있음.
집이 큰길 옆에 있는 것을 꺼림.	전통 마을의 집이 불규칙한 길을 따라 자리함으로써 주거지의 가로 체계가 가지형이 됨.

●과거 마을의 커뮤니티 형성

• '방 → 마당 → 대문 밖 → 골목길 → 동네 중심부'로 나갈 수 있는 구조
• 마을 안을 이동하다 보면 여러 경로를 자연스럽게 거칠 수 있음.

⬇

사람들의 만남과 모임이 곳곳에서 발생 → 마을 커뮤니티의 형성

●현대 공동 주택의 등장에 따른 공동체적 관계의 변화

공동 주택(아파트)에 '사이 공간'이 없음.

⬇

• 개인 공간은 사생활이 최대한 보장됨.
• 단지 내외 사람들과 소통이 어려움.

현대인의 개인주의적 성향에 부합함.

●과거와 현대의 마을 형성의 차이

과거의 마을	현대의 마을
이웃의 도움을 받아 개별적으로 집을 지음. → 오랜 시간에 걸쳐 자연스럽게 형성된 마을	전문 건설업자에 의해 일시에 건설된 아파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입주함. → 급조된 마을

●주거 공간의 변화와 사람들이 사는 풍경

과거	• 사이 공간을 지나며 서로를 자연스레 알아감. • 사람 간의 소통이 활발했음.
⬇	
오늘날	• 외부 공간이 이동을 위한 통행로에 불과함. • 사람 간의 소통이 어려움.

"공간이 달라지면 사는 풍경도 달라질까" 그리고 문제

1. 이 글의 주요 내용을 소제목별로 써 보자.

마을의 변화		모여 사는 마을		공간과 사는 풍경
마을의 뜻과 변화한 마을의 모습	➜	과거 주거 형태의 특징 + 동질성과 사생활 오늘날 주거 형태의 특징	➜	공간의 변화가 사람들이 사는 풍경에 미친 영향

2. 다음 항목에 따라 과거와 오늘날의 마을이 지닌 특성을 정리해 보자.

과거		오늘날
마당에 텃밭까지 포함하는 공간. 제각각의 형태를 띠지만, 집 안팎을 살펴보면 모여 살 수 있는 구조임.	집의 특징	개개인의 개별적인 공간. 균일한 형태를 띠고, 사생활이 보장됨.
오랜 시간에 걸쳐 자연스럽게 형성됨.	마을 형성 방법	불특정 다수를 위해 전문 건설업자들이 급조함.
사이 공간이 존재함.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만나 친밀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함.	사이 공간의 유무와 역할	사이 공간이 없음. 사람들 사이의 만남과 교류가 어려움.

3. 이 글에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파악해 보자.

공간의 배치가 사람들 사이의 관계나 삶의 모습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함.

4. 다음 신문 기사에서 '사이 공간'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공간을 찾아보자.

> 학교 내 빈 공간, 마을 공동체로 활용
>
> ○○도 내 학교의 빈 공간이 주민들에게 개방된다. ○○도 교육청은 학교 내 빈 공간을 활용해 학부모를 포함한 주민들의 쉼터인 '어울림' 복합 문화 공간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어울림' 복합 문화 공간은 학부모를 포함한 인근 주민들이 학교와 마을 공동체를 형성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 활동에 참여해 학생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민 이용 시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교문에서 가까운 곳을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 공간 내에 판매 시설과 북 카페, 모임터 등을 구성할 예정이다.
>
> –『시민 일보』, 2016년 5월 30일 기사

'어울림' 복합 문화 공간

"공간이 달라지면 사는 풍경도 달라질까" 문제 답안 문제

1. 전통 마을의 사람들이 이웃을 만나는 경로를 정리해 보자.

방 → 마당 → 대문 밖(집 주변) → 골목길 곳곳 → 동네의 중심부

2. 아파트 단지를 '인위적 마을'이라고 표현한 까닭을 짐작해 보자.

・아파트 단지는 비슷한 형태와 외관을 가진 공간으로 단지 내의 사람들은 유사한 집단으로 보이지만 실제 생활 모습에서는 공유하며 사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사이 공간이 없는 아파트라는 공간에서 사람들은 상징적인 결속성만을 확보하고 있을 뿐 단지 내외의 사람들과 단절된 채 충분히 소통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3. 과거와 오늘날의 주거 모습을 비교한 설명 방식의 효과를 써 보자.

과거와 오늘날의 주거 방식을 차이점에 주목하여 설명함으로써 과거와 달라진 오늘날의 삶의 모습이 주거 방식의 변화와 관계있음을 강조한다.

독지 노트

"기억나는 모든 것을 떠올려 보고 설명하고 써보라"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과거의 집과 달리 현대 도시 사회의 집은 개개인의 개별적인 공간으로 존재한다. 오늘날 우리는 개인 공간인 집을 나와 복도, 현관, 주차장 등의 공간을 빠르게 지나쳐 직장이나 학교에 가고, 또 어디론가 볼일을 보러 간다. 마을을 중심으로 여러 사람이 공간을 ㉠공유(共有)하던 과거와 달리 현대의 도시에는 이웃과 공유하는 공간이 매우 적고, 있더라도 비어 있는 때가 많다. 무엇이 달라졌기에 이렇게 변화한 것일까?

마을은 두 가지 ㉡속성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하고, 물리적으로는 개인의 공간과 공공의 공간 사이에 중간적 성격의 공간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공간을 '사이 공간'이라 하는데, 이는 통행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이라기보다 주민들 사이에 사적 관계를 형성하는 공동의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오랫동안 지속될 때 한 장소에 오래 머물러 사는 '정주성'이 형성된다. 이것은 집을 짓고 선택하는 과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중략-

과거에는 개인이 생활을 하는 집과 일을 하는 장소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매일 두 공간 사이를 오가며 그곳에서 다양한 일을 경험했다. 개인의 집과 집 사이의 거리도 가까워서 이웃과 친밀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자신의 생활 반경인 집 주변과 그 사이사이에서 사람들과 마주치도록 구성된 공간을 '마을'이라 불렀던 것이다.

방에서 나오면 마당이 있고, 대문을 열면 골목길을 만나며, 길을 돌고 돌다 보면 그 동네의 중심부로 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마을 안을 이동하다 보면 여러 경로를 자연스럽게 거칠 수밖에 없었다. 굳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의 만남과 모임이 곳곳에서 발생하였고, 그들 사이에서는 요즘 흔히 말하는 '커뮤니티'가 형성되었다. 집의 형태는 따로따로였지만 집 안팎을 살펴보면 모여 살 수 있는 구조였다.

오늘날의 대표적인 주거 형태인 아파트는 전통의 주거 형태인 주택과는 다른 특징을 보인다. 아파트는 한 단위 세대를 층층이 쌓아서 배치하는 적층(積層)을 기본으로 한다. 하나의 건물 내에 수평적, 혹은 수직적으로 균일한 주거 공간이 밀집해 있고, 거기에 동질성을 지닌 거주자가 모여 사는 것이 현대의 한국식 공동 주택이 지닌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공동 주택의 등장은 공동체적 관계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 공동 주택, 즉 아파트에는 '사이 공간'이 없다.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공동의 현관을 통과한 후 승강기 홀이나 복도를 거쳐 각자의 개인 공간으로 들어간다. 그곳은 사생활을 최대한 보장하는 공간이다. 주택의 형태나 외관만 보면 모두 같은 공간에 사는 유사한 집단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서의 생활 모습은 공유할 만한 것이 거의 없다.

사이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아파트 단지라는 인위적 마을에서 상징적인 결속성만을 확보하고 있을 뿐 단지 내외의 사람들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다. 단지 내에는 단지를 구획하는 울타리, 보안과 감시를 위해 설치한 시시 티브이(CCTV), 외부인을 통제하는 차단기, 비밀번호를 눌러야만 열 수 있는 ㉢견고(堅固)한 출입문이 있을 뿐이다.

주거지의 울타리는 우리의 범주를 규정하는 '영역 만들기'의 역할을 한다. 단지 내부에 동질성을 지닌 사회 계층이 거주하는 것이 현대 주거지의 특징인데, 외부와 차별성을 갖는 고급 단지일수록 그 울타리가 견고하다. 그러나 외부와의 단절뿐만 아니라 단지 내부에서도 이웃과 만나기 위한 공간과 행위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좁은 공간에 수많은 세대가 다닥다닥 붙어 있어 겉으로는 삭막해 보이지만 일단 현관문만 열면 아늑한 주거 환경이 펼쳐진다. 반대로 현관문 하나만 잠그면 집 전체가 바깥세상과 완전히 ㉣격리(隔離)된다. 가족만의 ㉤성역(聖域)에는 누구라도 예고 없이 방문할 수 없고, 이웃이나 친척이라도 안에서 문을 열어 주었을 때에만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현대인의 개인주의적 성향과 잘 맞아떨어진다.

-중략-

한 사람, 하나의 주거 공간이 차지하는 면적이 계속 증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이 사는 공간이 과거보다 매우 좁고 답답하다고 느낀다. 사람들 사이의 소통이 활발했던 과거의 마을과 달리, 오늘날의 주거지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과 교류가 어렵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는 개별 단위 세대 외에도 놀이터, 조경 시설, 주차장, 조그만 정자 등의 공간이 조성되어 있다. 하지만 단지 내에 보이는 사람들은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젊은 부모들, 잠시 짬을 내어 놀러 나온 아이들뿐이다. 요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외부 공간은 이동을 위해 지나가는 통행로에 불과하다. 이것이 담과 담 사이, 건물과 건물 사이를 지나며 서로를 자연스레 알아 갈 수 있었던 전통 마을과의 차이점이다.

주거 공간의 변화가 사람들이 사는 풍경에 미친 영향은 앞으로 만들어 갈 공간을 고민해야 하는 까닭이 된다. 공간의 모습을 고민하는 것은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과 결코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자동고등학교 (경기)

1.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과거에는 집의 형태가 현대보다 더 유사하여 함께 모여 살기에 편리했다.
② 공동주택 거주자는 거의 비슷한 형태의 집에서 살면서 생활을 공유하고 있다.
③ 현대인의 생활방식과 공동체적 관계의 변화로 인해 공동 주택이 등장하게 되었다.
④ 과거의 사이공간은 주민들이 통행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의 영역으로 정수성을 형성하였다.
⑤ 현대의 주거지는 동질성을 가진 사회계층이 거주하지만 소통을 하지 않으므로 실질적인 결속성이 거의 없다.

서동고등학교 (경기)

2. 다음을 참고하여 윗글에 대한 읽기 전-중-후 활동을 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한 편의 글을 읽을 때 독자는 읽기의 전-중-후 과정을 고려하여 능동적으로 글을 읽음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구성해 나간다. 독자는 읽기의 전-중-후 과정에 따라 적절한 읽기 활동을 스스로 점검하고 조절하며 글을 읽을 수 있다.

①	읽기 전 활동	글의 특성을 고려하여 읽기 목적을 확인하기
②	읽기 중 활동	이 글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글을 찾아보기
③	읽기 중 활동	과거의 마을에서 사람들이 이웃을 만나는 경로를 그려 보기
④	읽기 중 활동	현대 한국식 공동주택의 특징에 밑줄을 그어 보기
⑤	읽기 후 활동	현대사회에서 일어나는 이웃 간의 갈등의 원인을 공간 구조의 특징에서 찾아보기

서동고등학교 (경기)

3. ㉠~㉤을 사용하여 만든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내 것을 동생과 공유해야한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다.
② ㉡: 그는 학원에서 속성으로 고등학교 과정을 끝냈다.
③ ㉢: 그는 어떠한 유혹에도 굴복하지 않고 견고하게 자신의 신념을 지켰다.
④ ㉣: 보건법에 따라 홍역 환자는 격리 수용해야 한다.
⑤ ㉤: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이번 수사에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

천안중앙고등학교 (충남)

4. 윗글을 읽고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글쓴이는 공간의 구조가 사람들의 생활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군.
② 과거와 현대의 공간 구조 변화에 대해 초점을 두고 글을 전개해 나가고 있군.
③ 글쓴이는 과거와 현대의 공간 구조 모두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어.
④ 현대의 아파트는 외부와 단절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군.
⑤ 아파트는 단지 내부에서도 개인의 사생활을 중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천안중앙고등학교 (충남)

5. 과거와 오늘날의 마을이 지닌 특성을 '마을 형성 방법'을 중심으로 설명하시오.

pt005pt (카톡 ID)
내용 질문, 오류 신고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마을'은 '여러 집이 이웃하여 살아가는 동네', 곧 공동체의 촌락을 뜻한다. 과거의 살림집은 마당과 텃밭까지 포함하는 공간이었기에 생활의 영역은 마을까지 확장되었다. 이러한 구조는 농경 생활에 필수적인 이웃 간의 정보, 노동력, 생산품의 교환을 쉽게 해 주었다.

과거의 집과 달리 현대 도시 사회의 집은 개개인의 개별적인 공간으로 존재한다. 오늘날 우리는 개인 공간인 집을 나와 복도, 현관, 주차장 등의 공간을 빠르게 지나쳐 직장이나 학교에 가고, 또 어디론가 볼일을 보러 간다. 마을을 중심으로 여러 사람이 공간을 공유하던 과거와 달리 현대의 도시에는 이웃과 공유하는 공간이 매우 적고, 있더라도 비어 있는 때가 많다. 무엇이 달라졌기에 이렇게 변화한 것일까?

마을은 두 가지 속성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하고, 물리적으로는 개인의 공간과 공공의 공간 사이에 중간적 성격의 공간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공간을 '사이 공간'이라 하는데, 이는 통행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이라기보다 주민들 사이에 사적 관계를 형성하는 공동의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오랫동안 지속될 때 한 장소에 오래 머물러 사는 '정주성'이 형성된다. 이것은 집을 짓고 선택하는 과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과거에는 개인이 자기가 살 집의 입지를 선정하고, 목수와 상호 합의하여 집을 ㉠지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집들이 하나하나 들어차면서 마을이 생겨나고 그 사이사이를 따라 길이 저절로 만들어졌다. 개인의 주거 공간을 한정하는 담과 담 사이에는 길과 공터가 있었다. 전통 주거지의 길은 큰길에서 안길이 뻗어 나가고 또 그 길에서 샛길이 뻗어 나가는 식이었다. 사람들은 길이 곧게 뻗은 것을 흉하게 여겼는데, 특히 집으로 들어오는 길은 곧바로 보이지 않도록 구부러진 형태로 되어 있어야 길하다고 여겼다. 또한 집이 큰길 옆에 있는 것 역시 꺼린 탓에 전통 마을의 집은 실핏줄처럼 얽힌 불규칙한 길을 따라 자연스레 자리하였다. 이런 까닭에 근대 이전의 전통 마을에는 항상 구부러지거나 꺾인 불규칙한 형태의 골목길이 존재했고, 도시를 포함한 전통 주거지의 가로 체계는 ㉡격자형(十자형)이 아닌 가지형(丁자형)으로 나타났다.

오늘날의 대표적인 주거 형태인 아파트는 전통의 주거 형태인 주택과는 다른 특징을 보인다. 아파트는 한 단위 세대를 층층이 쌓아서 배치하는 적층(積層)을 기본으로 한다. 하나의 건물 내에 수평적, 혹은 수직적으로 균일한 주거 공간이 밀집해 있고, 거기에 동질성을 지닌 거주자가 모여 사는 것이 현대의 한국식 공동 주택이 지닌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공동 주택의 등장은 공동체적 관계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 공동 주택, 즉 아파트에는 '사이 공간'이 없다.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공동의 현관을 통과한 후 승강기 홀이나 복도를 거쳐 각자의 개인 공간으로 들어간다. 그곳은 사생활을 최대한 보장하는 공간이다. 주택의 형태나 외관만 보면 모두 같은 공간에 사는 유사한 집단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서의 생활 모습은 공유할 만한 것이 거의 없다.

-중략-

사생활 보호에는 이렇듯 철저하지만, 같은 단지 내에서 공동의 목표를 추구할 때에는 집단의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특히 그것이 단지의 이익과 관련한 것이라면 입주자회나 부녀회 같은 커뮤니티를 구성하여 주저하지 않고 의사를 표현한다. 이러한 아파트 단지의 결속성은 (㉮) 발휘되며 개별 단위 세대들은 자신들이 집에 들인 비용을 지키기 위해 집단의 힘을 발휘한다.

금명여자고등학교 (부산)

6.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u>않는</u> 것은?

① 전통 공간에서의 사이공간은 골목길을 들 수 있다.
② 하나의 주거 공간이 차지하는 면적은 계속 증가해왔다.
③ 과거에는 의도하지 않아도 이웃과 쉽게 만날 수 있었다.
④ 아파트 공동현관은 개인공간으로 가는 통행로일 뿐이다.
⑤ 사람들의 관계가 달라짐으로써 공간의 모습이 변화했다.

금명여자고등학교 (부산)

7. <보기>를 읽고 난 후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지난 4월 ○○시의 한 아파트에서는 택배 대란이 벌어졌다. 아파트 측에서 아파트의 품격과 가치를 지키겠다는 입장과 함께 택배 차량의 단지 내 지상 진입을 통제하여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지난해 6월 ○○아파트는 일반도로와 아파트단지를 잇는 입구에 주차 차단기 5개를 설치하고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통행료 2천 원을 받기로 결정했다. 아파트 주변의 교육시설 및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원성이 늘어만 가고 있다.

① 공통의 도덕적 신념을 추구할 때
② 사회 전체의 이익을 추구할 때
③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할 때
④ 약자 보호의 필요성을 느낄 때
⑤ 주민들의 개별적 요구사항이 발생할 때

1-(1) 확신이 없어도 괜찮아

1.① 2.⑤ 3.② 4.(1): 자신의 순수한 열정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일 (2): 목표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5.④ 6.④ 7.③ 8.② 9.⑤ 10.③ 11.② 12.⑤ 13.② 14.① 15.학창 시절 내내 공부하는 말만 들었기 때문 16.③ 17.② 18.⑤ 19.⑤ 20.④ 21.① 22.④ 23.③ 24.② 25.③ 26.⑤ 27.꿈은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무엇이다. / 가치 있는 삶을 꿈으로 갖기 위해서는 '진정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분간하는 기준을 정해야 한다. 28.③ 29.② 30.① 31.관심사를 따라 생각하고 관찰하고 독서하는 것을 통해 얻음 32.대학 입학을 목표로 삼고 열심히 공부하던 고등학생들이 그 목표를 이루고 나면 이후에 무엇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불안해하기 때문 33.③ 34.① 35.⑤ 36.③ 37.②

1-(2) 세상에 단 한 권뿐인 시집

1.② 2.⑤ 3.② 4.(1): 동일함 (2): 인물의 성격이 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제시됨 5.⑤ 6.④ 7.② 8.② 9.⑤ 10.⑤ 11.④ 12.④ 13.② 14.④ 15.③ 16.① 17.② 18.① 19.현아가 친구를 통해 시집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한 '나'에게 현아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서 상처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 오직 현아를 위해 쓴 시이기에 '나'도 시집의 주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20.④ 21.③ 22.⑤ 23.③ 24.① 25.③ 26.(가): 관념적, 추상적 (나): 감정적 27.① 28.④ 29.⑤ 30.설렘에서 불안으로 변화. 현아와 친구가 놀다 집으로 같이 들어갔을까 염려하기 때문.

2-(1) 비

1.③ 2.④ 3.② 4.③ 5.① 6.④ 7.1) 빗방울이 점차 세차게 떨어지는 모습 2) 빗방울 튀기며 바쁘게 걸어가는 산새의 모습 8.④ 9.② 10.① 11.② 12.산새의 걸음걸이를 사용하여 빗방울을 시각화한 것으로 활유법이 사용되었으며 빗방울의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줌. 13.④ 14.① 15.① 16.④ 17.② 18.④ 19.① 20.⑤ 21.ⓐ산새의 꼬리 ⓑ비유 22.⑤ 23.⑤ 24.③ 25.② 26.② 27.④ 28.시각적 이미지 사용 29.④ 30.⑤ 31.⑤ 32.⑤ 33.① 34.④ 35.④ 36.④ 37.④ 38.의인법 39.물살 40.⑤ 41.③ 42.① 43.청각적, 시각적 44.활유법, 무생물인 비를 생물처럼 표현했기 때문 45.③ 46.① 47.⑤ 48.② 49.③ 50.④ 51.④

2-(2) 삼포 가는 길

1.⑤ 2.③ 3.③ 4.④ 5.① 6.② 7.② 8.④ 9.⑤ 10.고향이 도시화 및 산업화가 되면서 고향 상실감에 따른 쓸쓸함 혹은 소외감을 느낌 11.① 12.② 13.⑤ 14.③ 15.④ 16.③ 17.⑤ 18.④ 19.① 20.③ 21.③ 22.기차가 눈발이 날리는 어두운 들판을 향해서 달려갔다 23.① 24.② 25.④ 26.① 27.⑤ 28.⑤ 29.③ 30.⑤ 31.⑤ 32.② 33.③ 34.② 35.뜨내기 신세 36.④ 37.⑤ 38.② 39.④ 40.⑤ 41.1인칭 내부 시점에서 3인칭 외부 시점으로 변화함. 42.유대감과 고마움을 느껴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줌. 43.⑤ 44.③ 45.① 46.① 47.②

2-(3)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1.① 2.② 3.윗글은 시나리오로 인물의 심리가 대화나 행동을 통해 드러나는 반면, <보기>는 소설로 인물의 심리가 직접 제시되어 있다. 4.③ 5.이 장면들은 공간 몽타주 기법에 해당한다. 공간 몽타주 기법은 각각의 장면을 적절하게 이어 붙여서 스토리가 있는 하나의 내용으로 만드는 기법이다. 6.⑤ 7.④ 8.① 9.⑤ 10.④ 11.① 12.③ 13.④ 14.⑤ 15.⑤ 16.④ 17.④ 18.⑤ 19.① 20.ⓐ: 몽타주 ⓑ: 대조 21.② 22.① 23.④ 24.③ 25.④ 26.③ 27.③ 28.⑤ 29.③ 30.⑤ 31.① 32.④ 33.① 34.③ 35.② 36.④ 37.① 38.⑤ 39.① 40.③ 41.② 42.① 43.③

2-(4) 보지 못한 폭포

1.④ 2.③ 3.⑤ 4.① 5.④ 6.⑤ 7.1) 골짜기 안에 기이한 폭포가 있다는 말을 전해 들어서2) 황 씨에게 속고 만 것을 유감스러워했기 때문에 8.③ 9.① 10.③ 11.⑤ 12.㉠ 객 ㉡ 주 13.② 14.⑤ 15.③ 16.① 17.④ 18.① 19.④ 20.④ 21.⑤ 22.④ 23.① 24.② 25.③ 26.③ 27.④ 28.발은 실제적 본질을, 탁은 관념을 나타냄 / 삶의 실제적 본질을 추구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음 29.④ 30.③ 31.③ 32.③

3-(1) 음운의 변동

1.① 2.① 3.⑤ 4.③ 5.③ 6.③ 7.신고[신꼬], 선릉역[설릉녁], 갔는데[간는데], 잘못[잘몯], 늦게[늗께], 도착했다[도차캔따] 8. ⑤ 9.① 10.④ 11.② 12.㉠ [달근] ㉡ [다가페] 13.② 14.③ 15.③ 16.④ 17.[redacted] 18.② 19.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20.③ 21.③ 22. ② 23. ④ 24. ⑤ 25. 구개음화, 구개음화는 음절의 끝소리 ㄷ,ㅌ이 형식 형태소 'ㅣ'나 반모음

'ㅣ'를 만나 구개음인 'ㅈ', 'ㅊ'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26.③ 27.④ 28.⑤ 29.⑤ 30.(1) 타라, 모음 탈락 (2) 입학, 거센소리되기 31. (1) [침:냑] (2) 유음인 'ㄹ'이 (3) 비음 'ㅁ'의 뒤에서 (4) 비음 'ㄴ'으로 변하는 (5) 비음화 현상이다. 32.④ 33.① 34.④ 35.④ 36.② 37.⑤ 38.첨가 39.신고, 갑자기, 왔다 40.④ 41.② 42.④ 43.② 44.③ 45.① 46.⑤ 47.② 48.④ 49.① 50.② 51.② 52.③ 53.④ 54.③ 55.① 56.⑤ 57.① 58.⑤ 59.⑤ 60.⑤ 61.③ 62.ⓐ: 음절의 끝소리 규칙 ⓑ: 비음화 63.④ 64.② 65.① 66.④

3-(2) 한글 맞춤법의 원리

1.③ 2.③ 3.④ 4.② 5.③ 6.① 7.⑤ 8.① 9.③ 10.④ 11.⑤ 12.① 13.뵈도(×)→봬도(○), 웬지(×)→왠지(○) 14.⑤ 15.마중(○): 소리대로 적는 까닭은 접미사 '-웅'이 여러 어근에 널리 결합하지 못하고 극히 일부 어근에만 결합하기 때문이다. / 드러났다(○): 소리대로 적는 까닭은 '드러'가 '들다[入]'라는 본래 뜻에서 멀어졌기 때문이다. 16.② 17.③ 18.② 19.③ 20.② 21.② 22.늘그막(○): '-으막'은 '늙-' 이외의 여러 어근에 널리 결합하지 않으므로 형태소의 본모양을 밝혀 적지 않고 소리대로 적는다. 23.② 24.① 25.⑤ 26.쓰러지듯(○): 앞 단어의 본래 뜻이 유지되지 않기에 소리대로 적음. / 일찍이(○): 앞 단어의 본래 뜻이 유지되고 있으면 그 어간과 어미의 본모양을 밝혀 적음. 27.② 28.④ 29.⑤ 30.① 31.③ 32.④ 33.② 34.샅샅히→ 샅샅이, 나뭇가지→나뭇가지, 싹뚝싹뚝→ 싹둑싹둑, 회전률→ 회전율, 촛점→ 초점 35.⑤ 36.② 37.① 38.백분률→ 백분율, 댓가→ 대가, 쐐어야→ 쐐야(쐬어야) 39.② 40.⑤ 41.④ 42.⑤ 43.④ 44.② 45.수만 마리가→수 만 마리가, 선률→선율, 몹씨→몹시, 않은 체→않은 채, 안된다→안 된다. 46.④ 47.③ 48.① 49.(1)어름→얼음 (2)어간에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기 때문에 '얼음'으로 표기해야한다. 50.(1) 황금율→황금률: '렬/률'은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오면 '열/율'로, 'ㄴ'이 아닌 받침 뒤에 오면 '렬/률'로 적는다. (2)우유빛→우윳빛: 합성어를 이룰 때 뒷말이 된소리로 발음되면 사이시옷을 적는다. 51.① 52.① 53.1) 머거→ 먹어, 용언은 어간과 어미를 구별하여 적어야 한다. 2) 여기에서 부터→ 여기에서부터, 조사는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54.⑤ 55.⑤ 56.② 57.뭉둥그려→뭉뚱그려:㉡, 씁슬한→씁쓸한:㉢ 58.④ 59.③ 60.③ 61.② 62.③ 63.⑤ 64.(1)도라간다→돌아간다 (2)두 용언이 어울려 하나의 용언이 된 경우 앞말의 본래 의미가 유지되고 있으면 원형을 밝혀 적는다. 65.⑤ 66.① 67.③ 68.ㄱ. 되요→돼요 ㄷ. 뵈요→ 봬요 ㄹ: 순대국→ 순댓국 69.②

3-(3) 존중하고 배려하는 대화

1.⑤ 2.① 3.⑤ 4.⑤ 5.④ 6.④ 7.② 8.④ 9.② 10.① 11.④ 12.함축적인 말하기 13.협력의 원리: 진실한 정보만을 말하지 않거나 모호한 표현을 사용함 14.④ 15.⑤ 16.③ 17.④ 18.④ 19.④ 20.③ 21.⑤ 22.② 23.① 24.②⑤ 25.⑤ 26.③ 27.③ 28.② 29.③ 30.④ 31.⑤

4-(1) 공간이 달라지면 사는 풍경도 달라질까

1.⑤ 2.② 3.② 4.③ 5.과거에는 오랜 시간에 걸쳐 집들이 하나하나 들어차면서 마을이 생겨나고 그 사이 사이를 따라 길이 저절로 만들어졌지만 오늘날에는 불특정 다수를 위해 전문 건설업자들이 완성한 것임. 6.⑤ 7.③ 8.② 9.④ 10.④ 11.① 12.② 13.① 14.④ 15.② 16.① 17. 과거: 이웃의 손을 빌려 개별적으로 집을 지었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마을을 형성함. / 오늘날: 불특정 다수를 위해 전문 건설업자들이 완성한 것으로 수많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한동네 사람이 되는 급조된 마을을 형성함. 18.④ 19.⑤ 20.도서관이 사이 공간처럼 개인적으로 책을 접하는 동시에 친구들과 공공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21.⑤ 22.③ 23.③ 24.⑤ 25.② 26.③ 27.③ 28.④ 29.④ 30.④ 31.② 32.㉠: 1)적층을 기본으로 함. 2)한 건물 내의 수평적 또는 수직적으로 균일한 주거 공간이 밀집함. 3)밀집 공간에 동질성을 지닌 거주자가 모여 삶. ㉡: 1)개인 공간은 사생활이 최대한 보장됨. 2)단지 내외 사람들과 소통이 어려움. 3)현대인의 개인주의적 성향에 부합함.

- 끝 -

총력만능국어
www.chongmangug.co.krkr

1-(1) 확신이 없어도 괜찮아

1. ①
▶객관적 수치와 자료가 제시된 것은 아님

▶어머, 이건 외워야 해!◀

1. 인용의 종류 (★★)

ㄱ.직접 인용: 남이 한 말을 그대로 옮김
(큰 따옴표 있으면 직접 인용)
ㄴ.간접 인용: 남이 한 말을 화자의 말과 문맥 안으로 옮김

-엄마가 "오늘은 집 밖에 나가지 마!"라고 했어.(직접 인용)

-최근 한 전문가의 연구에 따르면, 2050년에는 전 세계 희토류 수요량이 약 80만 톤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간접 인용)
지문에서 인용을 빨리 찾기 위해서는 먼저 큰 따옴표에 집중! 다음에, ~(라)고, ~다고, ~다는, ~라는 등의 말에 집중하자

2. 의문문 VS 설의법 VS 문답법 (★★★)

ㄱ.의문문: 화자가 청자에게 질문을 하여 그 해답을 요구함.
ㄴ.설의법: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평서문)을 의문문으로 제시해 강조함.
ㄷ.문답법: 스스로 묻고 답함으로써 강조함.

(상대의 나이를 궁금해 하는 상황)
A: 나이가 몇인가 →(일반 의문문)
B: 20살입니다

(나이에 걸맞지 않은 행동으로 상대를 질책하는 상황)
A: 나이가 몇인가 (나이에 걸맞지 않다)의 강조! →(설의법)
B: 죄송합니다 (물음에 대한 대답이 아님!)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상황)
나이가 몇인가 →(문답법)
내 나이 이제 40
잠시 나를 돌아보자

똑같은 의문형 어미(-가)로 끝난 똑같은 문장이라도 맥락에 따라 다른 표현기교로 사용될 수 있다. 물음에 대해 상대의 대답을 요구하면 '일반 의문문, 내가 대답하면 '문답법'이며 '설의법'은 형식만 의문문이지 실제는 평서문의 강조 형태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답을 기대하지도 또한 답이 나올 필요도 없다.

2. ⑤
▶목표가 뚜렷하지 않은 이들을 위한 글인데 목표를 정해서 그것을 나아간다는 반응은 부적절함.

3. ②
▶진정한 꿈과 가치 있는 삶을 말하는 글쓴이의 생각에 비추어 직업을 미리 정해둔다는 말은 거리가 멀다.

6. ④
▶㉣: 푯대 앞에 '그'라는 말에 주목해 보면 '그'가 가리키는 말이 이전 문장인 '가치 있는 삶을 꿈으로 갖기 위해서는 진정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분간하는 기준을 정해야 한다.'임을 알 수 있음. 그래서 푯대는 가치 있는 삶을 꿈으로 갖기 위해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분간하는 기준임.

7. ③
ㄹ. 주관적 전달임
ㅁ. 상반된 학설은 없음

8. ②
ㄴ. 직업을 목표 자체로 삼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음
ㄹ. 가치 있는 삶을 꿈으로 갖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분간하는 기준을 정하는 것임

9. ⑤
▶글쓴이가 독자를 설득하는 것이지 글쓴이 자신의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아님.

▶어머, 이건 외워야 해!◀

1. 사례 vs 예시 (★)

ㄱ.사례(실례): 어떤 일이 전에 실제로 일어난 예. (과거의 일)
ㄴ.예시: 예를 들어 보임.

사례와 예시를 구별하지 않고 쓰기도 하나 이를 정확히 구별해서 쓰는 문제가 수능에 출제된 적이 있기에 꼭 구별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다.

2. 대비:

두 가지의 차이를 밝히기 위하여 서로 맞대어 비교함.
→ 대비라고 해서 반드시 반대의 맥락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두 대상 간의 차이점만 있어도 대비라고 볼 수 있다.

10.③
▶(다): 진로를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현실

12.⑤
① 명실상부(名實相符): 이름과 실상이 서로 들어맞음.
② 명약관화(明若觀火): 더 말할 나위 없이 명백(明白)함.
③ 시종일관(始終一貫):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관철(貫徹)함.
④ 언중유골(言中有骨): 부드러운 말 속에 분명하고도 핵심적인 뜻이 담겨 있는 것.
⑤ 권토중래(捲土重來): 어떤 일에 실패한 뒤 다시 힘을 쌓아 그 일에 재차 착수하는 일.

13.②
▶공부가 수단으로 전락하고 획일화되기에 지식은 주입되지만 지성은 사라짐.